여름보다 뜨거운 '염불행자' 수행 열기

[현장]
전국염불만일회, 20주년 염불정진대회

"모든 이들 차별 없고 나무아미타불, 정각세계 이뤄지고 나무아미타불, 국토장엄 선행하며 나무아미타불…."

뜨거운 여름, 아미타 48대원이 밀양 재악산 자락에 울려 퍼졌다. 아미타부처님 명호 한 번에 절을 하는 사람, 박수를 치는 사람, 합장하는 사람까지 모습은 제각기 다르다. 하루 1만 번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염불 속에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를 외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여름보다 뜨거운 염불정진대회 현장이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는 7월 28~30일 2박3일간 밀양 표충사에서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20년차 염불정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염불만일회는 1998년 8월 6일 고성 건봉사에서 1100여 명의 염불행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염불만일회를 결성한 바 있다.

호국성지 표충사서 용맹정진
전국 염불행자 250여명 동참
"힘차게! 신나게!" 환희 가득


전국에서 모인 염불행자들이 목탁소리에 맞춰 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있다. 전각 뒤로 우거진 재악산의 녹음이 한여름 더위를 잊게 만든다.


동산불교대학 능인풍물반의 천수북 공연은 염불행자들의 신명난 정진을 독려했다.


두 눈을 감은 채 염주를 돌리며 아미타불 염불에 매진하는 불자의 얼굴이 진지하다.

20년차를 맞아 열린 이번 염불정진대회는 특별히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에서 열렸다. IMF 시기 국난극복을 위해 결성된 전국염불만일회 의미를 새롭게 하자는 취지였다.

입재식에서 동산반야회 법주 법산 스님은 "조선시대 국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당시 사명대사가 일본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이곳에서 새롭게 인연을 쌓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상우 전국염불만일회 염불정진대회장은 "사명대사의 얼이 담긴 호국성지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로 가득 채워 가벼운 마음으로 귀향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장은 "불교는 일찍이 옛날부터 민중의 귀의처 역할을 담당해왔다. 호국불교의 기치를 더 높이고 갈등과 분열 속에 방황 중인 한국에 화합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자"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염불결사의 목적으로 △한국불교 정토화 △호국불교역할 담당 △신원행(信願行) · 믿음 · 발원 · 행으로 일심불란의 신심염불 △경전 공부를 통한 균형 잡힌 신행 등을 강조한 뒤 새로운 염불결사에 불자 대중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충사 주지 법기 스님은 "염불결사를 통해 호국의 의미를 찾고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했다.

올해 염불정진대회는 28일 입재식으로 시작해 철야로 이어졌다. 동산범패반의 신중작법, 법산 스님의 법문, 나무아미타불 1만송 염불정진이 밤새 이뤄졌으며, 29일 새벽예불과 더불어 표충사 경내서 행선염불 · 선무도 체조가 진행됐다. 또한 신명나는 공연도 이어졌다. 동산불교대학 능인풍물반의 천수북 소리에 맞춰 불자들은 함께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며 신명난 정진으로 나아갔다.

한여름 주말 표충사 계곡을 찾은 관광객들도 염불정진이 이뤄진 표충사 우화루 옆에서 발길을 멈추고 천수북 소리에 귀 기울였다. 재악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은 뜨거운 열기를 식혔고, 바람에 땀을 씻은 250여 불자들은 합장한 채 눈을 감고 산골 깊은 곳에서 아미타부처님을 칭명하며 장엄한 메아리를 연출했다. 이외에도 한국전통무용과 다도 퍼포먼스, 영남 농악, 선무도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30일 마지막 날에는 아미타 독경과 안동일 회장의 염불법문 및 회향식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도반들과 함께 정진해 얻는 힘이 크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동훈 동산불교대학 33기 회장은 "목탁 소리만 들어도 평소 신바람이 났다. 그러다 포교사 활동을 하면서 '집에서 혼자 염불 수행하는 게 어렵다'는 도반의 말을 듣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며 "염불정진대회는 도반과 염불을 하면서 환희심을 얻고 배우는 기회가 된다. 함께하는 힘은 정말 크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혜진 불자(동산불교대학 45기)는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 또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염불행자 도반들을 만나니 즐겁기 그지없다"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하루하루 기도의 연속이라 환희심 그 자체"라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염불대회 20년차를 축하하고 정진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서로 격려하는 선물증정식도 이어졌다. 김성우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대표는 책 〈반주삼매경 심요〉를 보시했으며, 태고종 혜견 스님은 부채에 직접 〈반야심경〉을 적어 대중에게 선물했다.

김성우 대표는 "염불결사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선물했다"며 "처음 염불결사를 시작할 때 공동 대표였던 김재일 법사님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분과의 인연이 떠올라 이 자리가 더욱 귀하게 생각돼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혜견 스님은 "현장 법사님이 적으신 여러 〈반야심경〉 가운데 특별히 해인사의 장경각에 적힌 것을 인용했다"며 "염불과 함께 경전을 바탕으로 더욱 수행 정진하고, 무더운 여름 번뇌를 식히듯 청량한 바람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20차년도 염불정진대회'에는 동산법주 법산 스님, 표충사 주지 법기 스님, 표충사 성천 스님, 진홍 스님, 이상우 전국염불만일회 염불정진대회장,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장, 박문태 동산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종현 동산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염불만일회는 통일신라 758년(경덕왕 17년) 발징 화상이 고성 건봉사에서 염불만일결사를 맺은 것이 효시다. 이후 제2차는 1802년(순조 2년)에 결성해 1850에 회향, 제3차는 1851년(철종 2년)에 벽오유총 스님이 결성해 1863년에 회향, 제4차는 1881년 만화관준 스님이 결성 1908년에 회향, 제5차는 1908년 금암의훈 스님이 열어 정진 회향했다.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던 염불만일회는 잠시 중단됐다가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故김재일 법사와 건봉사 주지 해장 스님, 현재 동국대 총장인 보광 스님 등이 공동대표로 6차를 결성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밀양 표충사=하성미 기자

2017학년도 생활풍수 최고지도자 과정 제15기생 모집

'글로벌 리더를 향한 꿈의 도약'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이루십시오

풍수지리 전문가를 향한 꿈의 날개를 펴라!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통의 최적지인
서울 남산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인의 길, 풍수지리사로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를 모십니다

국무총리실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21세기에 요구되는 전문가로의 탄생!
21세기는 전문가 시대!
풍수지리학의 이론과 현장실습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격기본법에 의한 양택감정사,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풍수지리 전문가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입학안내
■ 접수기간 _ 2017년 7월 17일 ~ 2017년 8월 31일
■ 접수처 _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사회과학관)
■ 문의 _ 생활풍수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연구실
02)2260-8576 / 010-3795-5088(박종희)
주임교수 _ 심재열 박사 010-5282-3388

모집요강
■ 입학자격 _ 모든 일반인 남·여대상
■ 입학정원 _ 50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_ 220만원(학기당)
■ 실습비 _ 별도

교육특전
■ 동국대학교 총장 수료증, 행정대학원 원장 인증서 수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풍수지리사, 양택감정사 2급,1급 자격증 수여
■ 수료 후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 추천

교육기간
■ 개강 _ 2017년 9월 5일(화요일)
■ 교육기간 _ 1년(2학기), 학기당 16주, 17회
■ 장학제도 _ 승려 30%할인, 동국대학교 동문 20%할인

원서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_ 입학지원서 1부, 사진(3x4cm)3매
■ 원서교부방법 _ 홈페이지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_ ① 온라인 - http://gspa.dongguk.edu 접속 후 입학지원
② 홈페이지 - www.iysps.com(요산풍수지리학회)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우 04620)
■ 전화접수_전화로 인적사항 통보 후 등록금 송금
신한은행 140-011-413690 동국대학교(행정풍수)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